

어떤 복을 받고자 하는가?

이 정 엽
(뉴비전교회 목사)

사람이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잡기 위해 오늘도 동, 서양을 막론하고 각기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동서고금에 걸쳐 행복론을 기술한 책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두룩하다.

우리 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오래 살고, 출세하며, 건강하고, 자녀들을 많이 두는 것을 복으로 알았다. 그런 것을 모두 갖춘 가정을 다복한 집으로 부러워하였다. 또 이런 복들을 갈망하면서 베개, 이불, 수저, 젓가락, 옷 등등 보이는 것마다 닥치는 대로 복(福)자를 새겨 넣곤 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에도 “만복”, “수복”, “복자”, “복순” 등등 “복”자가 들어간 이름이 많다.

그리고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새해부터 복이 쏟아지기를 바라며, 교회에서는 “신년 축복 대성회”라는 것을 열지 않는가? 그리고 그 때에는 평소에 열심히 나오지 않던 사람들도 모여들고, 게다가 일년 중 가장 많은 헌금이 모아지는 날이기도 하다. 복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복되신 하나님(딤후 1:11; 6:15)이라고 칭하고 있고, 또 성경에 얼마나 복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고 기대하며 구하는 복의 개념과 사례들이 성경 가득히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서두를 “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았던가(마 5:1-12)?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복을 받고자 이렇게 열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복인가? 복의 본질과 내용 면에서 제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의 개념들이 아닌 것들로 우리가 각색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느 상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는 참으로 복 받았어”라고 고백하게 하는가? 어떤 복이 임하기를 갈구하고 있는가? 어떤 복을 받고자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이 복이라고

정의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확실한 진리와 삶의 지침으로서 우리의 잘못된 사상과 생활을 바로잡아 주고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딤후 3:16,17). 이제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구속 역사를 통하여 계시하신 올바른 복의 개념과 실재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무엇이 복이며, 어떤 복을 구해야 하는지 바른 교훈을 받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명심할 사실이 있다. 성경은 단편적인 사건을 서로 모아 놓은 책이 아니다.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들을 적당히 배열해놓은 책이 아니다. 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나 신앙의 인물들의 전기를 기록한 것도 아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관하시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먼저 나타내 보이시고 교통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이루는 구속 역사의 정점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해간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비교할 수 없는 계시의 발전과 수준의 격차, 성숙과 완성의 차원에서 볼 때 큰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구원의 성취와 역사와 비교할 때 둘 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정도와 수준에 있어서는 혁혁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나타난 계시 발전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 복의 개념과 실재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동시에 어떻게 발전하고 성숙하며 완성되어가고 있는가를 놓쳐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 아니며,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냐고 하면서 구약에 임한 복이 그대로 오늘 나에게도 질적, 양적으로 똑같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과 역사하심이 진전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약 이런 흐름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수종들면서 따라가지 못하고 역사에 뒤쳐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고집과 무지와 불신앙을 낳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어떤 일을 이루셨고, 또 그런 기반 위에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어떻게 살고, 구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우고 그 분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으로 핑계와 위안을 삼을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하여 실제로 보여주시는 복에 대하여 대강의 중요한 흐름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계시 발전사적 관점에서 본 복(福)의 의미

1. 창조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복

창세기에 처음으로 언급된 복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 창 1:27-28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였는데 무슨 복을 주셨는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이다. 이 복을 크게 나누면 종족 번식의 복과,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라 할 수 있다. 자녀를 낳고 종족을 번식해가는 것이 인간의 노력의 결과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누리는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정복해가는 특권의 복을 인간은 부여받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수동적인 개념의 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르고 추구하며 이루어야 할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이다. 이런 복된 위치와 신분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지식(골 3:10)과 의와 거룩함(엡 4:24)과 통치 능력(창 1:27)}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복을 선언하심과 동시에 명령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특별히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는가를 우리는 창 2:19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모든 생물들의 특성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이 사실이고, 그 복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창 2:3에 의하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고 하였고, 그 날을 복된 날로 삼으신 것은 옛새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벽하였고 의도하신 선하신 목적대로 다 이루어짐을 전제하고, 일곱째 날을 복 주시사 거룩한 날, 즉 하나님 당신에게 속한 날로 구별지으셨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일곱째 날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다른 옛새와 구분하여 특별한 날로 지정하시고 복된 날로 삼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평상시처럼 일하지 않고 안식하여 쉬므로 하나님께서 옛새동안 완벽하게 그의 창조 사역을 마쳤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이다. 이것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이고 이유이며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 당신이 그 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시기 위하여 일곱째 날을 복된 날로 지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이런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알고 고백하며 찬양토록 하시기 위하여 일곱째 날을 복된 날로 지정하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일곱째 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람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복인 것이다.

2. 아담의 타락과 하나님의 복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위치와 수준으로 창조함 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이 복을 상실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거룩함을 추구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만 것이다. 영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인간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람에게 주신 복을 완전히 거두어가신 것은 아니었다. 즉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은 자녀들을 갖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며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복을 이전과는 달리, 잉태하는 고통과 수고를 통하여(창 3:16)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땅까지 저주를 받아 사람이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정도로 어렵게 되고 만물을 다스림이 힘들게 된 것이다(창 3:17-19).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된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잠시 보류된 장차 흠으로 돌아가는(창 3:19) 육체적인 죽음도 맛보아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말미암아 영생과 축복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창 3:22-24). 참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복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복이 하나님과 뿔래야 뿔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

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하자마자 복은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받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가?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있다. 사람에게 이미 내리신 복을 다 거두어 가지지 않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상실한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창 3:15 말씀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갈 4:21-31)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출하실 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상실한 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계획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런데 다 거두어가가지 않고 남겨두신 복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아담이 범 죄한 이후 인류는 급속도로 악하여지고 최악이 온 세상에 관영해서(창 6:5)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까지 가게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창 6:8) 노아와 그의 가족만 멸망으로부터 생명을 보존케하셨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후, 인간은 번성하고 편만하게 되었으나 그들의 도모는 또다시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게 되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창 11:4)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의 왕국을 건설하며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창 11:6)고 하시면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 마침내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온 지면으로 흠어지게 하셨다. 저주와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이제 인류는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그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류를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며 상실한 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유효하며 이루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지명하시고 부르신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3.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고도의 문명권, 메소포타미아

갈데아 우르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행 7:2)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수 24:2-3).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지만 유독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 역시도 주변의 종교심이 있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조부와 부모와 마찬가지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학자들에게 의하면 달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한다).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재차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창 12:2-3). 이것은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씀인가? 이제껏 우리가 살펴본 것과는 달리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말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오판이 아니겠는가? 그가 갈데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는 동안 그의 믿음이 복의 근원이 될 만큼 성장한 것인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만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 마음대로 아브라함을 미화하기 시작한다. 즉, 그가 원래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며 갈 수 있었다고 보고, 또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본토를 떠날 수 있었다면 그는 일차적으로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던 자기 아버지 데라(수 24:2)와 종교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나 창 11:31에 의하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있어서 그 여행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이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데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라고 하였다. “영광의 하나님”(행 7:2)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행 7:3)고 하신 것이지만 아브라함 혼자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가장이신 데라가 아브라함을 대동하고 그 길을 떠난 것은 그들 모두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로서 종교적인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한 번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만 듣고서 종교적인 두려움만으로 당시 자기 문화권을 떠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었다. 그래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최후 변방지인 하란에 주저앉아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차 나타나신 것이다(창 11:32-12:1).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만이 아니라,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창 12:1).

놀랍게도 데라라는 이름은 “지연하다”, “지체하다”는 뜻이 있다. 결국 데라는 아브라함을 통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체케 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옹호하고 변명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마찬가지로의 수준인 것이다. 마침내 때가 되자(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더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다. 그것이 창 12:2-3 말씀이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을 좇아 갔고”라고 하였고 5절에서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이 원래 가고자 하였는데 아버지 데라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여왔다는 뜻이 강한 것이다. 이처럼 결단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만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받을만한 수준에 아브라함이 와있지 않았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곧바로 기근을 맞아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창 12:10) 신앙의 타락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먹을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을 뿐이다. 만약 이것이 신앙의 타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을 괴롭힌 일로 바로 왕이 혼나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다. 적어도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바로 왕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창 12:2-3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은 아브라함 자신이 그같은 축복을 받을 만한 수준에 있었다거나 그가 누릴 개인적인 복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우리는 이 복의 의미를 갈수록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창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출하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그것을 시인한 아브라함은 재빨리 과연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 되어주셨습니까? 라고 여쭙었다.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자식을 가리킨다(3절).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시 127:3에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고 하였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재빨리 그 말씀을 걸고 따진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5절)고 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복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어서 7절에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로라”고 하셨다. 바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고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8절)라고 하나님께 여쭙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 15:9-21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며 약속하셨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창 15:18).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 당사자들이 짐승을 둘로 찢개놓고 함께 그 사이로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은 만약 어느 누가 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이 짐승이 찢개진 것과 마찬가지로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뜻하는 저주의 약속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둘이 함께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타는 햇불이 찢개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 하나님 혼자서 그 사이를 걸어가시고 아브라함은 다만 그것을 바라볼 따름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의 동의나 협조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과 명예와 생명을 걸고 스스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약하는 언약이었다. 이것만큼 더 확실한 언약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이 언약 예식을 통하여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지금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당대에 주시지 않고 400년 후에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 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13-14절), “네 자손은 사 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16절)라고 말씀하셨다. 왜 아브라함 당대에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고 사 대 후에야 주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아모리 족속, 곧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정도로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또 400년 동안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종노릇을 하면서 섬기는 나라로부터 괴로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그 다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주셔야 하는 이유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올 때 그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잘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셨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지막 열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사건으로 그가 항복하지 않았던가?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감으로 목숨을 구하였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모면한 것이 아니다. 이미 어린 양으로 대신 심판이 행해지고,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난 것이다. 이것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대신 죄값, 피를

흘리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사건을 미리 내다보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애굽은 성경에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상을 상징한다(계 11:8; 호 11:1; 사 19:1; 31:3).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영적인 기업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상징한다(히 3-4장).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있는 후에야 우리는 영적인 기업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당대에 주시지 않고 사 백 년 후에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체화된 하나님의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손에 관한 복이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의 선언은 아브라함 자신을 가리켜 지칭하며 그것을 이루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후손, 그의 씨로 말미암아 그같은 복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이었던 것이다.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의해보라. 창 22:17-18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 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 12:2-3절 말씀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다른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라 할 때 그것은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창 26:2-4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이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향한 복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또 아브라함 당대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삭에게로 다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역시도 이삭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주실 것을 재차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삭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 외삼촌 라반 댁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 28:13-15)고 하셨다 (기타 창 27:27-29; 28:3-4; 32:9-12 참조).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 나중에 야곱이 뱀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창 35:11-12)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 후손,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인가? 누가 그 복의 근원이시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인가? 성경은 이 후손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다. 갈 3:16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행 3:25-26 참조).

결국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신 복의 선언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오며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또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한 이후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사람만이 재창조함 받은 것이 아니라, 썩어짐의 종노릇 가운데 있는 온 우주 만물도 장차 회복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롬 8:20-21; 계 21:1-2).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시며,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 씨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되었고,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다. 아울러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로 말미암아 사단과 대적하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왕노릇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갖게 되었다(고전 6:2-3; 롬 5:17; 딤후 2:12; 계 22:5).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 계속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축복의 약속도 단지 육적인 혈통을 잇는 자손들을 가리키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적인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자손들이 되는 복을 받는다(요 1:12).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미 받은 셈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미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복이 있다면 이같은 영적인 후손들을 더욱 더 양육하는 일인 것이다. 육적인 혈통을 이은 자녀들을 많이 둔 것만이 복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것을 훈련시키셨다.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다. 오늘날 포경 수술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였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큰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나이 86세 때에 사래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만다.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은 거의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창 17:1).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래서 창 17:1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라”(4절)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고야 말 것이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 나를 믿고 이스마엘을 낳는 것과 같은 짓일랑 다시는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너희 중 남자는 다 난지 팔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 할례의 의미는 누구든 육적인 혈통을 따라 난 사람은 죽어 마땅한 존재이다는 것을 뜻한다(사 53:8). 그리고 할례는 레 19:23-24에 의하면 거룩하다는 뜻이 있다. 또 골 2:11-15에 의하면 할례는 신약 시대의 세례와 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지내며 다시 살아남을 뜻한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이삭이 육적인 차원에서의 네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후손인 것이고, 누구든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거룩한 영적인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뜻하는 언약의 표시인 것이다.

특히 할례를 난지 팔 일만에 행하라고 한 것도 인간은 날 때부터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표시임과 동시에 그것은 일곱째 날인 안식일 다음 날, 곧 제 팔일 주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함 받은 것을 내다보는 예표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알았기에 즐겨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삭도 순수히 응하였던 것이다. 피차 육적인 차원의 부자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임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단순히 육적인 후손들을 번성케 하겠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육적인 자녀를 많이 가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아무리 수많은 자녀들과 후손들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죄로 죽어 마땅한 육적인 자녀들만 낳아 양육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며, 또 하나님께서 자식을 기업으로 주신 목적과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자녀는 더 이상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상이거나 수단이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록 육적인 혈통을 잇는 자녀가 없더라도 낙망하거나 복받지 못한 자라 슬퍼하지 말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후손들로 양육하는 것이 더 큰 복임을 알고 감사하며 영적 양육에 힘써야 한다.

다음으로 넘어가지 전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들이 받은 실제적인 복들이 무엇이었는데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누린 현실적인 복을 오늘날 신자들이 구하며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눈에 보이는 복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사실이다. 수많은 가축들이며, 우물들이며, 자녀들의 번성함 등등 눈에 보이는 복들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복들은 복의 실체도 아니었으며, 복의 전부도 아니었다. 오히려 항상 복은 하나님 자신이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복들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당사자들의 신앙 수준을 고려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백성의 복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런 현실적인 축복들로 증명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대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역사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족장들에게 주신 복 가운데 우리는 자손에 관한 축복에 이어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가? 또 그 가나안 땅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팔레스타인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었는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사 대 후에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창 15:16-21).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인도하셨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 후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 날로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며 종으로 부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 고통이 심하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찬 것이다(출

2:23-25).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관한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후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게 되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4.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복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것이 전부라 아니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시작으로 출애굽 시킨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십계명을 주시기 앞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4-6).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제사법과 시민법을 주신 것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런 언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 언약을 깨고 말았는가? 첫째로 그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민 14장). 가나안 족속이 강하여 진멸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이 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제 1세대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 40년의 방황을 통해 다 진멸되고 말았다.

이렇게 출애굽 하였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를 믿어 죄로부터 구원함 받은 것이 구원의 전부로 알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 하나만 가지고 해방의 기쁨만 만끽하며 다함없는 휴가를 즐기며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는 신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의 구원은 출애굽이 전부라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앞장서신 여호와와의 군대 장관을 따라(수 5:13-15)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내 발로 밟고 차지하여야(수 1:3) 비로소 내 땅이 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이다.

마침내 재무장된 제 2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섰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스라

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대 승리를 거두었다. 오직 패배한 곳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아이성 전투였으며(수 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싸우기를 싫어하여 남겨두고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부리려는 타협으로 쫓아내지 못한 곳뿐이었다(수 11:22-23; 13:13; 15:63; 16:10; 17:12-13).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2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 7:2-5에서 이렇게 하도록 명령하셨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는가?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같이 행하더니 갈수록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며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저들과 동화되어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니었던가? 하나님은 이같이 될 것을 내다보시고 미리 경고를 하셨다. 수 23:12-13에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녕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고 하셨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나안 땅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업과 안식을 뜻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절하고 온전히 순종치 않음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면, 또 들어갔어도 그들과 타협하여 싸움을 하지 않고 공존 공생의 길을 걸음으로 종국에는 그들이 다 진멸하지 않은 세력들이 강성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 앞에 벌벌 떠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를 믿어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과 사단의 유혹들과 타협하지 않고 정복해야 비로소 영적인 승리와 기업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뜻한다. 만약 적당히 타협하고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나중에 어떤 무서운 화근으로

괴로워해야 되고, 이전에 몰래 부린 죄의 씨앗이 성장하여 얼마나 큰 고통과 가시로 등장할 지 모른다는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 전도한다는 미명 아래 불신자와 결혼하여 자신의 신앙마저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또 교단의 세를 늘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목사를 세우고, 신앙과는 상관없이 재력이 있다고 장로를 세우며, 교인을 붙들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한국 교회를 만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지금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부린 세상적인 타협으로 말미암은 죄의 열매들이 성장하여 지금 하나 둘씩 우리 앞에 등장하여 울무와 채찍과 가시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외적인 상처만 치료해서는 안되고 근본적인 치료, 그같은 죄를 단호히 끊고 정복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가능할 뿐이다. 만약 이런 것이 없이 우선 당장은 자리잡고 살며 누릴 땅이 있고, 거들 양식이 있고, 전쟁을 하지 않으니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복 받은 것처럼 생각하며 기뻐할 지 모르나 조만간 하나님의 채찍과 불신자들로부터의 비웃음과 조롱으로 어떤 어려움과 망신을 당할 지 모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된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명심해야 될 영적인 교훈들이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팔레스타인 땅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온전한 안식과 영적 기업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는 미래적인 것이었다(히 4:8-11).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적인 기업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적인 가나안 땅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과 안식은 예수의 재림으로 임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누린다는 점에서 미래적인 것이다.

결국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엡 1:3). 이미 우리는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나라에 속한 기업과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이 이미 임한 것이고, 성령의 내주와 그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벴후 1:3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으며 누리고 있는 것인가? 이미 주신 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여 구하고, 이미 주신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가? 과연 우리는 어떤 복을 더 받고자 하는 것인가?

오늘날 기복주의자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신명기 28장을 잠시 고찰해보자. 신 28:1-14

은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복들이 가득히 나열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복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셔야 되는 간구 사항이 아니라, 그런 복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므로 주시는 복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조건이란 무엇인가? 축복의 서두에 언급된 대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2절)라는 조건부 축복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문자 그대로 이같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는 문제삼지 않더라도 과연 이런 복을 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하여 지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무조건 이런 복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복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만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축복의 목록(1-14절)과는 비교되지 않을 수많은 (16-68절) 저주를 선언하셨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떤 한 가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명령과 규례”(15절)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위치와 수준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문자 그대로 받아드리고 이같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들도 지켜야 하는가?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지만 동시에 하라고 명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않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우리는 왜 신명기에 선언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3, 6절) 원하는 것인가? 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가? 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를 원하는가?(13절) 복을 받아서 남에게 꾸지 않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왜 남에게 꾸어 주지는 않고 움켜쥐고 사는가? 꾸지 않은 복만 받아서인가?(12절)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는 남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내 생색내고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지 않고, 그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는 하지 않고, 축복 성회라는 곳은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갑절도 아닌 수천, 수백 억만 배의 복을 달라는 기도 아닌 기도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도대로 그만한 엄청난 분량의 복을 받지도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축복을 빈 사람이 잘못 구한 것이고, 우리는 그의 감언 이설에 그만 사기를 당한 것인가?

구약의 축도라고 불리우는 민 6:24-26에 의하면 구약의 복이 우리가 생각하듯 물질적인 현

실적인 복만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해준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면서 가르쳐주신 말씀이다. “여호와와 함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함께 그 얼굴로 너를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함께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내용 가운데 어디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부귀 영화와 건강과 성공과 출세의 기원이 있는가?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축복의 전부요, 최고 최상의 것이다.

그리고 축복은 축도하는 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27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축복을 비는 제사장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축도하는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지 왜 제사장들과 목사들을 통하여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리 배려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축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이는 제사장들과 목사를 통하여, 그리고 그들이 축복하는 것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축복을 내가 주는 것처럼 교만 방자히 행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을 위주로 하는 복을 빌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예배당을 나가는 성도, 축도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싫다는 말인가? 아니면 목사가 주는 복이라서 거절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집안 일이, 사업이, 친교실 음식 준비하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인가?

5. 솔로몬의 증언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복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보아도 역사상 지상에서 가장 큰 부귀 영화와 복을 누렸던 솔로몬 왕의 증언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세상적인 각도에서 솔로몬만큼 복을 누린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한 사람보다는 실제로 그것을 받아 누리 사람의 증언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지 않겠는가?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왕상 3장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일 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5절)고 하셨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9절)라고 간구하였다. 그러자 10절에 보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맞은지라”고 하였다. 이윽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壽)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富)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

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11-14절)는 축복을 주셨다(대하 1:7-13 참조).

신약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 그 모든 것을 받은 셈이다(마 5: 31-33). 그가 구하여 받았던 지혜는 잠언을 통해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으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소위 세상적인 부귀 영화도 그만큼 누린 자가 없다. 다만 조건부로 약속하신 장수의 복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였을 뿐이다(12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치리한 후 죽었다).

그런데 이 짧은 생애 동안 그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의 증언이 무엇이었는가? 생생한 그의 증언이 전도서에 실려 있다. 전도서를 통하여 그는 바른 길을 안내하며 제시하고 있다. 그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가 누린 부귀 영화에 대한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1:2)라고 고백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2:10-11)고 고백하였다. 이 고백은 염세주의 자나 세상과 삶을 포기하는 도피주의자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에 충실하며 그 모든 것을 누린 자의 결론이며 산 증언인 것이다. 그는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2:25)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낙으로 만족케 하시지 않고, 이 세상 삶이 전부인줄 알고 거기에 안주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3:11)을 주셨다고 한다. 즉, 나그네로서 살도록 만드셨다는 말이다. 또 인간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5:15)고 하였다.

솔로몬은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다(5:19). 그러나 그것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었다(2:24; 5:18-19). 사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2:24; 6:2) 그러나 사람이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를 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꾀를 내고(7:29), 욕심이 차지 않고(6:7), 악이 가득하여 미쳐있고(9:3),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8:11; 11:9), 결국 무덤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자신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12:7)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창조자를 기억하고(12:1),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됨을 제시한다(8:12-13).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증언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수고하며 재물과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하여도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아니며 생명이 다함과 동시에 나와 무관한 것이 되고, 그런 면에서 그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헛되고 헛된 생애이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 전부이다는 것이다. 일순간의 먹고 마심과 부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나는 것이다.

결국 전도서는 모든 것들을 누려본 솔로몬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잘못 누리고 헛된 것을 잡으려고 헛된 생애를 살아왔으니 너희들은 나를 교훈삼아 내가 걸어온 길로 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제시하시는 길로 가라”는 피를 토하는 당부의 말씀이요, 기복주의가 아니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라는 증언이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라고 그 바른 길을 제시하는 안내인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며 어떤 복을 구해야 하겠는가? 솔로몬이 오지 말라고 한 길을 다시 가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내가 구하였던 복이 헛되고 헛되며 헛된 일이었다고 솔로몬처럼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 역시도 그 길을 답습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가?

6. 복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

이제 복의 실체이시고 모든 궁극적인 참된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산상 설교 중 팔복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에 대한 가르침을 중점적으로 상고해보자.

1)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복

먼저 예수님의 팔복에서 기억할 것은 그 모든 복들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이미 복된 자가 되었으니 이런 복을 누리게 되고, 또 더욱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다. 즉, 첫 번째 복도 “심령이 가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생각해보라! 죄인 스스로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니며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 죄임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과 현상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이미 그는 복을 받은 자이다. 이처럼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로다!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실 때 과연 우리는 아멘 하며 감사할 수 있겠는가? “아니, 무

슨 말씀입니까? 주님, 제가 달라는 복은 주시지지 않고 영영 모른 채하시겠습니까?”라고 불만을 토로하며 따지겠는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복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는, 어느 하나도 요사이 기복주의자들이 구하는 복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주리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함, 화평케 함, 의 곧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 이 모두가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결단코 “너희 재물이 많은 자여 복이 있도다! 너희 건강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너희 박사 학위를 가진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너희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하며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나 눈에 보이는 복을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둘째로, 팔복의 어느 하나도 우리의 본래적인 성품과 천성적인 기질을 가리키지 않았다.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온화하며 불임성이 좋은 사람을 복되다고 선언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 자를 가리켜 심령이 가난하다거나 온유하며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 모든 복된 상태는 성령의 종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빚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과 삶을 가리킨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체험한 자들만이 나타내 보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삶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 마땅한 것이다.

셋째로, 팔복의 어느 하나도 독립적으로 생각하며 추구할 복이 아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만 하면 되고 화평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 가는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는 이 모든 것을 추구하고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핍박이 오면 빨리 그 핍박을 피하며, 핍박이 없기만을 간구하고 있는가?

넷째로, 이 팔복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모든 복을 누리고, 누릴 수 있으며, 누려야 마땅하다는 사실이다. 모든 신자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며, 인격이며, 받아 누리고 구할 복인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 없이는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부패한 자임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계 2:9; 시 70:5; 34:6, 18).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며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통회하며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려고 회개하는 애통하는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같이 마

음 중심으로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주님은 용서해주시고 받아주시며 위로해주시기 때문이다(요일 1:9; 계 7:17; 21:4).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려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주신 사명에 충실하며 겸손히 감당하며, 억울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마저도 인내하고 오래 참는 온유한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기업에 부요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바라보며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시 37:11; 벧후 1:3; 갈 3:29; 계 22:5).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갈구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시며 생수이신 예수님과 그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주리거나 갈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다(요 4:14; 6:35).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로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던 방식대로 다른 이웃을 대하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날에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딤후 1:18; 약 2:13).

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 말씀과 기도로 성결의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왜냐하면 장차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영광 가운데 그를 영원토록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 13:12; 히 12:14).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된 자로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한 것을 알고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하나되게 하심을 지켜나가는 화평케 하는 자인가(엡 2:14-16; 벧전 2:9; 고후 5:18-19)? 그렇다면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왜냐하면 그런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답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히 12:4; 롬 12:18).

나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손해와 욕과 핍박과 악한 말도 감수하며 기쁘게 감당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욱 긴장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는 장차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벧전 4:14; 마 28:20; 고후 4:17-18; 약 1:12; 딤후 4:8; 벧전 5:4; 고전 9:25).

과연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인가? 이미 복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에 눈이 어두워 감사하지도 못하고 헛된 복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며 추구하고 있는가? 이제껏 복을 받아서 나의 인격과 삶은

얼마나 변했으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과연 나는 어떤 복을 받고자 하는가?

팔복의 말씀 외에도 예수님은 마 6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
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
에 쌓아 두라”(19-20절)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
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
씀하셨다(32절). 그러면서 이미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모
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고 하신다(32절).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이며(24절), 하나님
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이다(30
절).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고, 내 노력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자는
늘 그 마음에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일심으로 섬기며 주인으
로 모시며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함께 하신다. 필요
한 것을 더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역이 남아있는데 그같이 하나님을 사
랑하는 자녀들을 굶겨 죽이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
나안 땅에 들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마시우시며 입히신 분이
아니신가?(신 8:3-4)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공수해주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
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시 37:25)는 다윗의 증언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공급해주신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첫째는 우리 스스로가 다 알아서 챙기고 있으니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것이고, 또 그러니
하나님이 구태여 채워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적
은 믿음 때문이다. 조지 윌러와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적은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까마귀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신앙,
나만 복을 받겠다는 개인주의 기복 신앙이 주 안에 있는 형제와 교회의 필요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역사하심에 무감각, 무반응토록 만든 것이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가? 공중에 나는 새나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
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돌보시지 않겠는가?(마 6:26-30)라는 하나님을 신
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하며 최고의 복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따르겠는가?

2) 예수님의 병 고침과 복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신 일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병 자체를 죄악시하고,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알고 가르치시며 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마 4:23에 “예수께서....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고, 24절에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고 하였다.

먼저 예수님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그에게 고침 받지 못할 병은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권능과 치유의 사역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신적인 권능으로 되어진 일이었다. 그 분이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었다. 그만큼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다. 그리고 그가 고치신 병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낫는다든지, 잠시 병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용하여 고치는 마술이나 최면술, 심령술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병의 근원을 아신 분이셨기 때문에 병을 온전히 고치실 수 있었다. 귀신이 들린 병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고치셨다. 오늘날 모든 병이 다 귀신이 들린 것이라고 주장하여, 뭐든지 “귀신아, 물러가라!”고 외치는 저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귀신이 들린 병도 있었지만, 병 중에는 그렇지 않는 병도 있음을 아셨다. 심지어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도 있음을 아셨다.

둘째로, 예수께서 이처럼 모든 병의 원인을 아시고 그 병을 완전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바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이사야 35:5-6에 예언하기를,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하였다.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누가복음 4:18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읽으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 모인 무리들에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눅 4:21)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병을 고치신 것으로 예수께서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이다. 이처럼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병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뜻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관점에서 병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마침내 약속하신 메시야가 오셨음을 드러내기 위해 병을 고쳐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말은 깊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예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못 고치실 병이란 없다. 그러나 병 고치는 것으로 자신의 메시야이심을 증명하실 단계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것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활동하던 초기에는 그러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야이심이 부활을 통하여 더욱 확실히 드러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후반부터는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령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딤후 5:23)고 하였다.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서신인데, 디모데가 앓고 있는 병을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옛날 같지 않아서 그 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인가? 아니다. 이전에 큰 권능을 행하였던 바울이요,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이제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메시야 되심은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런 일을 위하여 불러드리며, “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되겠느냐는 것이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한번은 그렇게 구할 수는 있고 하나님은 또 그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헐박하려는 신자가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병 고침 자체로 우리의 신앙 여부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울질하는 것은 참으로 유치하고 불손한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가름하고 우리의 신앙의 진실 여부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부로 저울질하는 일일랑 해서는 안되는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다음으로 예수께서 이처럼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가를 보게 된다.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끊어진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의 육체만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고자 함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물론 불치의 병에 걸려 시간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불쌍하다. 사업이 망하여 빚 더미에 눌린 사람들도 불쌍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한 사람들도 불쌍하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다. 생명의 주가 자기 옆에 와서 서있으셔도 그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자기가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불사하며 뛰어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혹 우리 자신들이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닌가?

천국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아닌가?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이 병 고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육체만이 아니라, 너희의 육체가 이렇게 고침 받듯이 너희의 영혼이 이렇게 고침 받고 낫기를 원하노라'는 주님의 의중을 놓친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 아닌가?

사실 오늘날 문제는 병 고침 받는 능력과 복을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판가름이요 복의 시금석이며,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좇아 다니며, 또 그런 사람들을 등에 업고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힘으로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켜서 이름도 내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돈도 긁어모으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소위 "능력의 종"이니 "신유 집회"니 하면서 종종 신유의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에게 초점이 모아지고 실제로 그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은 온 데 간 데 없고, 웬 종이 나와서 주인 행세를 하며 중간에서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님 자신께서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병을 고치셨다고 한다면 그런 행위들은 근절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집회는 하나님을 특정한 인물과만 상대하시는 분으로 잘못 알게 해준다. 바로 나의 하나님, 내가 직접 그 앞에 나아가 나의 아픔을 토로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그 분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임을 놓치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 그렇다고 그런 집회를 무조건 다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이나 앞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놓쳐서는 안됨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옛날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의학이 발달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가?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병자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가? 그리고 병이 낫게 된 것을 복이라고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그 회복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어떤 복을 받고자 하는가?

7. 초대 교회와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가 행하신 일을 통해 복의 의미를 생각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후의 초대 교회와 4 복음서 외에 다른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의 개념들을 대강 살펴보고자 한다.

초대 교회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복 주심의 결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의 교회는 지상에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탄생한 초대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복으로 알았는가?

첫째로, 당연히 그 모든 복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복이었다. 행 3:25-26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였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인가를 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주리라”는 약속을 받아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자손”,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받게 되었다고 밝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가?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전처럼 제사장들을 통하고,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하다고 지정한 소나 염소나 양의 피를 부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다(히 9:11-14).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께서 죄없는 인간으로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위한 모든 죄값을 받으시고 단번에 피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성도들은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히 10:10-22).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사장들을 통하고, 짐승의 피를 바치고,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과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구약의 성도들이 누리지 못한 복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받고 누리는 복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회의 지체들간의 화목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화목 제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시고 하나되게 하심으로 이루어 놓은 복이요 관계이다. 이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까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어떠한가를 생각해보라. 선민이라고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하였던 유대인들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 둘 사이의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한 새 사람”,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엡 2:11-22). 그러니 이 얼마나 복된 관계요, 이전에 맞보지 못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복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기도 하다.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피차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누리고 있는가? 주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다른 복을 구하고 있는가?

둘째로, 초대 교회와 성도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신 것을 복으로 알았다. 먼저 우리는

성령 강림과 관련된 오해를 막기 위해 다음의 사건들을 주의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오순절 성령 강림(행 2:1-13)과 사마리아에서 발생한 성령 강림 사건(행 8:4-25)과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내리신 성령 강림 사건(행 10:44-48; 11:1-18),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행 19:1-7)은 구속 역사를 성취하는 시점에서 일어난 특별한 성령의 역사이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 우리 개개인이 구원 체험으로 추구하고 경험해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사건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령 강림 사건은 오랜 반목 관계를 이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담을 허시고 하나되게 만들고, 사마리아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와 접목시키는 구속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또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하나되게 만드는 구속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것은 베드로가 증거한 바가 아니었던가? 행 11:17-18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허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공공연하게 적용시킨 사건이 바로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됨을 인정하고 받아드린 것이다. 끝으로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은 열 두 사도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하여 점차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일련의 성령 강림 사건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는(행 1:8)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복으로 달라고 구하고 똑같은 방언의 체험을 해야됨을 요구하는 사건이 아니다. 초대 교회와 성도는 이런 특별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성실하고 점진적으로 완성하며 이루어 가심을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을 걸고 복음 전파에 힘썼던 것이다. 이 얼마나 복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났겠는가? 오늘 우리도 이 복을 받아 예수를 믿고 또 죽어 가는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이 복을 나만 누리지 말고 이웃들에게 나눠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 복을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만 복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대하시는 요구와는 상관없이 어떤 복을 받고자 하는가?

또한 성령의 종생의 역사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온갖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예수 안에 감추인 신령한 복들을 깨달아 알고 누리게 하신 것은 초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복이 아닐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엡 1:3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모든 신령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 판에 새기며 중심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주시며,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케 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이루 말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받은 복으로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는 복이니 얼마나 엄청난 복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이나 사업의 잘됨을 구하지 않고 엡 1:17-19에서 이런 것을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복이 있다면 이런 복인 것이다. 이 복을 구해보지 않겠는가?

셋째로, 초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따라서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것을 복을 받은 자의 마땅한 본분으로 알았다. 복을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이다.

모든 복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성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초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딤후 1:11; 6:15).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이유는 예수님과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이다(행 2:22-24, 32-33, 36; 3:13-15, 18-21, 26; 4:10; 5:29-32 등을 읽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의해보라). 그래서 그 모든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렸다(롬 11:36; 고후 1:3-4; 엡 1:3 등).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신 것이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삼위 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근거한 영적인 축복들을 받고 또한 사모하며 구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후 13:13). 구약 시대와 비교되지 않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고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더 구체적이고 영적인 복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계속 그같은 복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하고 그가 주시는 복을 구하고 있는가? 이미 이런 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안에 감추어진 무궁한 은혜와 복과 보배를 깨달아 알고 누려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복이며, 우리 역시도 그같은 복을 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마 5:10-12)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 당하는 것을 복이라 믿었고 가르쳤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행 4:29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라는 말은 위협함이 덜하도록 감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주목해달라는 기도이다. 그 이유는 핍박자들의 위협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도록 섭리해 주시고, 또 자신들로 하여금 더욱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다. 이 얼마나 오늘날 어떤 어려움도 없고 평탄하기만을 바라는 복을 구하는 자들과 다른 기도가 아닌가?

또 행 14:22에 의하면, 사도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가르쳤다. 딤후 1:8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였고, 같은 3:12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였다. 사도 베드로도 벵전 4:12-14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하고자 하는가?

과연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가? 의를 위하여,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복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없어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그런 복을 구하는가? 초대 교회와는 시대가 다르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고난과 핍박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독점물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바르게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고, 또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초대 교회 성도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믿고 먼저 베풀어주며 섬기는 삶을 살았다. 우리는 이것을 행 2:42-47, 그리고 4:32-35에서 보지 않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행 20:35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하였다. 받는 것도 복이다. 그러나 주는 것이 더 복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였는가? 그 이유는 첫째, 그것이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삶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을 보라. 무조건 달라고만 한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다. 신자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늘 하나님께 달라고만 요구하는 것이다. 기도가 전부 “주십시오, 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닌가? 뭐든지 축복해 달라고 그러고, 온

갓 은사들을 다 달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남에게 꿰리지 않고 생색내려고 하기가 일쑤이고, 그것을 주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기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일은 드물지 않는가?

그러나 성장하면 할수록 남을 생각하게 되며, 사회와 세계,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유욕에서 봉사와 희생으로 성숙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치한 신앙의 상태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나만을 생각하며 복받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이웃과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데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주는 삶이야말로 주의 제자됨을 드러내고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는 길이기 때문이다. 요 13:34-35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세상은 도전 받는 것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불신자들의 삶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 먹을 빵과 물과 입을 옷을 베풀어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며 전도의 마음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주는 삶이야말로 주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최선의 길인 것이다. 그리고 주는 삶이야말로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는 길이다. 우리 하나님을 보라.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는가?(롬 3:25; 8:32)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종으로서 살다가 죽으셨다. 먼저 베풀어주신 분이셨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먼저 베풀어주신 분이 오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역시도 먼저 베풀어주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며 힘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베풀어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이해하며 공감하게 되고, 이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과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더 복된 일이 아닌가?

셋째로, 주는 삶이야말로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며 예비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 25:34-40을 보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현대 교회들은 대인들만을 낚으려고 하기 때문에 소자를 대접할 줄 모른다. 지극히 작은 형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며 구제하며 선교한다고 하지만 과연 주님께서 인정해주시고 주님께 한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주의 제자와 같은 복음 전파자나 사역자(마 12:48-49; 28:10; 10:42; 18:6, 10, 14), 혹은 주 안에서 하나된 동료 성도들에게 한 일이 주님께 한 일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인격적인 사랑이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가? 과연 우리는 이런 주는 복을 구하며 나누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요, 주님께서 위탁한 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잘 드러내주며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는 아무 것도 베풀며 줄 수가 없다. 다 아까운 것이다.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긁어모으려고 혼심을 다할 것이다. 이 땅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기 위하여 낭비하며 사치하며 허랑 방탕하게 살거나 혹은 반대로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빈손으로 흠으로 돌아가는 구두쇠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 나라에 있고, 그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하여 잠시 이곳을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안 신자들은 이 세상 욕심과 재물에 인생을 걸지 않고, 주의 나라와 형제들, 소외당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하여 있는 것을 나누며, 아낌없이 기꺼이 베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하늘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부지런히 투자할 것이다.

결단코 주님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지금 은행 잔고가 얼마나 남았느냐고 장부 좀 보자고 우리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수 만 불씩 아끼고 저축하는 동안 죽은 사람, 굶어 죽고 병들고 혈벗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고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알고 기도하며 베풀어주고, 또 주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며 희생함으로 바치고 베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뢰하고 형제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받기만을 구하지 말고 주는 자의 복됨을 누리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딤후 6:17-19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위에서 말한 복들 외에도 신약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자들을 복된 자들이라고 하였다. 계 1:3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

이 있나니”라고 하였고, 계 14:13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고, 계 16:15에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하였으며, 계 19:9에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고 하였다. 나는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계시 발전사적 관점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 2)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 3)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다.
- 4)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모든 신령한 기업과 복을 받았고, 받아 누리며,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5) 복은 무조건 구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
- 6)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
- 7)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종말론적인 것이며 장차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다.
- 8)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우리가 추구할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 가기 위한 복이다.
- 9)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은 그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복이라고 말하거나 추구하라고 한 적이 없다.
- 10)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먼저 베풀며 주는 삶과 복을 누려야 할 것이다.
- 11)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구약 성도들이 받아 누리지 못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인지 모르며 감사하지 않고 살지는 않는가? 다른 복,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복이 최고인 줄 알고 그 풍성한 복을 내팽개치고 얼마나 가난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바라건대 이미 주셨고 또 더욱 예수 안에 감추어진 복을 찾아 누리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당신은 어떤 복을 받고자 하는가?

